

2014년 무용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심사총평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2014년 무용 창작산실 우수공연 지원사업은 5일 간에 걸친 시범공연을 통해, 소극장 공연 6개 단체와 대극장 공연 4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심사위원들은 (1)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2)공연작품의 예술성 (3)공연단체의 역량을 심의기준으로 하여, 모든 시범공연을 관람한 후 최종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창작산실 실연심사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공연되었는데, 개인소통 채널인 SNS로 인해 오히려 소통에서 단절된 사회현상을 분석한 작품이나, 몸이 가진 순수한 아름다움 그 자체에 주목한 작품, 혹은 안무가 개인의 경험을 소재로 한 작품 등 그 종류가 다양했다. 또한 다른 예술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춤 언어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눈에 띄었다. 심사는 실연을 바탕으로 전막공연을 했을 경우 작품이 의도하는 완성도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를 최우선 고려하였는데, 극장환경의 제약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실연을 한 안무가들의 현실적 어려움도 충분히 감안하여 평가하였다.

소극장 공연의 경우 안무자의 의도와 주제가 무리 없는 구성과 전개로 비교적 잘 표현된 작품도 있었지만, 몇몇 공연의 경우에는 작품계획서를 통해 제시된 안무의도와 주제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과도한 실험적 방법에 도전함으로써 도리어 주제를 벗어난 작품도 있었다. 대극장 공연 역시, 우수한 기량으로 작품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작품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여주기 식의 나열이나, 혹은 시각적 효과만으로 무대 채우기에 급급했던 작품도 있었다.

선정된 단체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연말에는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공연되기를 바란다. 아쉽게 탈락한 안무가와 단체도 향후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산실을 통해 좋은 무용작품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2014년 무용창작산실 심의위원 일동